

필립 로스의 『포트노이씨 병』 연구:
유대적 정체성의 위기*

백낙승
(강원대학교)

Baek, Nak-Seung. (2006). A study on Philip Roth's fiction: Crisis of Jewish identit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3), 211-226.

This paper examines the crisis of the protagonist's Jewish identity in Philip Roth's *Portnoy's Complaint*. Jewish values are centered on the philosophy of Judaism and Jewish history. Judaism is based on an ethical monotheism which is Bible-centered. It is characterized by its covenant with God, its humanism, and its emphasis on moral action. It provides essential reasons for man's existence and stresses human confidence and sufficiency. Jewish values can be found in words such as "good," "humanity," "dignity," "responsibility," and "sense of community." These positive Jewish values pervade Philip Roth's fiction paradoxically. Throughout especially *Portnoy's Complaint*, the protagonist fails to embrace Jewish values in contrast to Bellow or Malamud's heroes and repeat the same mistakes eliciting fits of laughter from readers. The protagonist suffers from his strongly-felt ethical and altruistic impulses perpetually warring with his extreme sexual longings against which he struggles. His desperation grows as he finds himself unable to channel his dissatisfaction and change his situations. His dominating mother and his confusion over Jewishness and Americanism are the main obstacles to his establishment of self-identity. He attempts to build up his gender identity and Jewish identity through his ego-centric sexual relationship with shiksas (female gentiles). His inability to embody Jewish values leads to the failure to fulfill his identity. Roth paradoxically shows that the protagonist's realization of Jewishness is essential to the cure for his

* 본 논문은 2005년 강원대학교 기성회 해외파견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fragmented self.

[Jewish identity/moral action/fragmented self, 유대적 정체성/도덕적 행동/ 분열된 자아]

I. 서론

필립 로스(Philip Roth, 1933-)는 1959년에 『굿바이, 콜럼버스』(*Goodbye, Columbus and Five Short Stories*)를 맨 처음 발표한 후 최근에 내놓은 『미국에 대한 음모』(*The Plot Against America*, 2004)에 이르기 까지 무려 20여 편이 넘는 작품들을 통해서 무한경쟁을 강요당하는 개인적인 절박한 욕구라는 미국적인 주제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유대적인 주제를 희화적으로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시종일관 기울여 온 대표적인 유대계 미국 소설가이다. 그는 같은 유대계 미국 작가인 버나드 맬러무드(Bernard Malamud, 1914-1988)와 솔 벨로우(Saul Bellow, 1915-2005)와는 달리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나 유대인 주인공이 고통과 소외를 극복하고 도덕적인 성숙을 이루는 전통적인 유대적 주제의 틀에서 벗어나 유대인도 남들과 똑 같은 욕정과 갈등을 겪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천착한 탓에 많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아왔으며, 비평계에서도 엇갈린 평가를 받아 왔다. 비평가 마크 셰크너(Mark Shechner)는 로스가 작가적 관심을 기울여온 미국적 가치와 유대적 가치의 상충관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셰크너의 논평은 로스문학의 중심 주제를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Roth’s insistent single master conflict has been the struggle to negotiate the competing claims of individual imperative — the American theme — with the group imperative — the Jewish theme. The former is the optimistic triad of individual happiness, personal freedom, and self-reliance that personifies America’s official myth of itself. The other is the belief among Jews at large, a belief both naive and profound, that Jewish writers are ‘their’ writers: heir to the common history, partners in the common destiny, and therefore spokesmen for the common will.”(Shechner, pp. 337-338)

로스 소설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행복, 자유, 자기신뢰라는 낙천적인 실용적 가치 추구하고 전통적인 유대적 가치 수호의 상충은 구세대 유대인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부모들과 유대성보다는 미국적 가치에 동화

되려는 유대인 자식들과의 갈등이나 이성간의 갈등으로 극화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로 외설 시비에 휘말려왔던 로스를 2001년 여름호 『타임』(*Time*)지가 미국 최고의 소설가(America's Best Novelist)로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은 외면적인 회화적 가면 아래 유대성(Jewishness)을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의 갈등과 고뇌를 극화시키고 있는 작가적 진지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 자신도 한때 그의 문학에 관한 조이스 캐롤 오츠(Joyce Carol Oates)와의 인터뷰에서 “순수한 장난기와 치명적인 진지성은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다(Sheer Playfulness and Deadly Seriousness are my closest friends.”(Royal, p. 3)라고 밝힌바 있으며, 문학에 있어서의 장난기와 진지성의 중요성을 “유대인의 장난기(Jewish Mischief)”라는 에세이에서 독자들의 반응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As a writer, of course, I have myself been not merely labeled mischief-maker but condemned by any number of affronted readers[...] In their eyes I commit not amusing mischief but serious mischief, not responsible mischief but irresponsible mischief; with a crazy intensity that is unremitting, I enact a farce about issues that are anything but farcical [...Readers] have reminded me more than once that my impertinence imposes on even our gravest concerns a demeaning and most ridiculous shape. Because of this my mischief-making is something other than a relief. It is a menace and a scandal. (“Jewish Mischief” 1, p. 20)

로스는 자신의 작품을 읽고 모멸감을 느끼는 독자들이 보기에 자신이 유쾌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장난질을 하고 있으며, 책임감이 있는 장난이 아니라 무책임한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장난질이 그런 독자들에게는 위안이 아니라 골칫거리와 수치감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가 의도하는 것은 유대인 주인공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수치감을 조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는 원초적인 부분까지도 독자들에게 깡그리 드러내어 보여 줌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위선의 벽을 무의식적으로 허물어버리려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데릭 파커 로얄(Derek Parker Royal)은 로스의 짓궂은 장난기 성향은 호손(Nathaniel Hawthorne), 멜빌(Herman Melville), 그리고 제임스(Henry James)의 작품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로맨틱 아이러니(romantic irony)와 유사하며, 로스가 그의 소설에서 걸쳐 쓰고 있는 많은 가면들은 인간이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지, 나아가 참의 세계를 어떻게 창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을 역설적으로 전해주는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Royal, p. 4). 로얄의 언급은

로스의 소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겹겹이 둘러싸여있는 로스 소설의 가면의 겉모습이 아니라, 가면 속을 들여다보는 해안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다. 로스는 각각의 작품에서 여러 유형의 짓궂은 가면을 쓰고 다양한 주제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주제들로는 상기한 미국적 가치 추구하고 유대적 정체성의 갈등 이외에 전후 미국 사회의 교외화 현상, 코미디와 풍자의 사용, 유명한 문인이 치루는 희생과 고통, 작가와 작품간의 관계, 아메리칸 드림의 가능성과 실패, 정체성의 양태 등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Royal, p. 4).

알랜 쿠퍼(Alan Cooper)는 로스 소설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신의, 성숙, 자유, 가족, 민주주의와 유다이즘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 전후 미국사회의 문화적 다원성(cultural pluralism: 소수자 집단이 그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사회에 관여하는 현상)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등을 꼽고 있다(Cooper, p. 7). 한편 로스 소설을 바라보는 비평가들의 의견은 크게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레미 라너(Jeremy Lerner)와 해롤드 라이발로우(Harold Ribalow)와 같은 비평가들은 로스가 저급한 인물들을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불필요할 정도로 동포 유대인을 야유하며 편견을 지니고 바라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Lerner, p. 761, Ribalow, p. 361), 그랜 미터(Glenn Meeter)와 같은 비평가는 로스와 멜러무드를 나란히 비교하면서 로스소설이 외형상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로스도 멜러무드와 마찬가지로 매우 종교적인 낭만주의 작가이며, 그의 주인공들은 신앙의 탐구를 하는 신심이 있는 인물들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Meeter, pp. 5-45). 존 맥다니엘(John McDaniel)같은 비평가는 로스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와의 유사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Pinsker, p. 9), 어빙 하우(Irving Howe)같은 비평가는 로스가 처녀작 『굿바이, 콜럼버스』를 처음 발표했을 당시에는 유대계 미국 문학에 힘을 더해주는 새로운 목소리의 탄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었지만, 후일에는 등장인물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상스러운 작가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비평가들의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로스의 소설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종일관 유대인 주인공이 유대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연유로 인하여 미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애환을 익살스럽게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대적 정체성(유대성)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본 후 로스 소설의 유대인 주인공이 겪게 되는 유대적 정체성의 위기와 그 극복의 가능성을 『포트노이씨 병』(*Portnoy's Complaint*, 1969)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유대적 정체성과 미국적 가치

미국 문단에서 소위 인종적 소수파(Ethnic Minority)에 속하는 작가들의 소설들은 전통적으로 보다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편협한 인종적 특수성이라는 틀을 뛰어 넘지 못하는 작품의 한계성 때문에 미국 사실주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들에 비해 작품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작품 활동을 했던 타인지 로스는 미국 흑인작가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이 흑인작가나 게이작가로 편협하게 분류되기를 거부했던 것(Palumbo-Liu, p. 194)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유대인의 작가가 아니라 유대인인 작가("I am not a Jewish writer; I am a writer who is a Jew.")라고 공언한 바 있다(Ozick, p. 158). 로스의 이 말은 자신의 작품에서 유대성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은 작가로서 예술을 선전이나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심미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진정한 예술가로서 평가받고 싶다는 작가다운 소신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사실 많은 이론가들의 말대로 특수한 민족적 정체성 자체가 미국적인 것과 상치되거나 무관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중요한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미국문화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로스가 다루고 있는 이소설의 주제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민들로 이루어진 모든 미국인들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로스는 이 소설에서 미국적 가치와 유대적 정체성의 충돌과 와해보다는 화해의 가능성과 실마리를 역설적으로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로스의 이러한 주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성(Jewishness)과 유대주의 또는 유대교(Judaism)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대성이란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동시대의 추세에 어울려 있는 유대인의 인종적 특성, 즉 다양한 배경 하에서도 과연 유대인다운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취들의 혼합물을 통칭하는 말이며, 유대주의 또는 유대교는 종교적인 교의(dogma)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유일신 야훼 하느님의 선택에 의하여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유대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계명, 의식, 전통, 신앙 등의 전 생활 영역을 총칭하는 말이다(Lange, p. 149). 유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주의의 기본 철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대철학 사상의 발전을 더듬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의 기본철학은 구약성서를 중심으로 한 윤리적 일신론(monotheism)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대인들의 관심은 전통적으로 유대민족과 야훼 하느님, 나

아가 인간과 하느님과 관계에 집중되어 왔다(Belkin, pp. 7-8). 창조의 기원과 연관관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창조한 의미와 관련이 있는 철학이다. 이것은 결국 인간 실존에 이성을 부여하고 참 회개를 통하여 신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신성(神性)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인간의 신뢰와 자력”(human confidence and sufficiency)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낙관적 철학이기도 하다(Hartman, p. 209). 유대주의는 유대인을 다른 민족과 분리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확신시키는 일련의 믿음, 의식 그리고 윤리를 포함하는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의 생활방식이자 종교이기도 하다(Lange, pp. 6-7). 유대주의는 토라(Torah: 유대교 율법: 모세오경)—창세기·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 등—에서 시작되었으며 탈무드(Talmud: 해설을 붙인 유대교의 율법 및 전설 집)를 구성하는 말과 글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유대주의의 특성은 신과의 맹약, 휴머니즘, 도덕적 행위의 강조 등으로 볼 수 있다(Baeck, pp. 38-39). 유대주의에는 몇 가지 중심이 되는 가치들, 즉 생명, 사랑, 정의, 자유, 진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가치들이 수없이 많다. 이러한 가치들은 서로 독립되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라는 하나의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삶은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대적 규범이다. 하느님은 살아 계신 분이므로,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살아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유대적 규범에는 내포되어 있다. 살아서 행동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도덕적으로 성숙한다는 뜻이요, 죽는다는 것은 인간답지 못하게 되어 가치 없게 된다는 뜻이다(Fromm, pp. 179-182).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느님의 계명 즉, 하느님의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느님의 율법의 중심은 사랑과 정의를 표방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묶인 자를 놓아주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자는 것이 예언자들의 교훈이었으며 끝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 강령이다(Fromm, pp. 78).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유대교에서는 야훼 하느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율법을 실천하며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권장하는 덕목들을 실천하면 하느님께로 다가간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유대적 가치들이 『포트노이씨 병』에서는 회화성을 띄고 역설적으로 나타나있으므로 주인공이 겪는 유대적 정체성의 위기의 문제를 전착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씨워놓고 있는 가면의 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포트노이씨 병』에 대한 비평가들의 평가는 다양하다. 마야 맨즈(Marya Mannes, p. 39)와 어빙 하우(Irving Howe, p. 74)는 이 소설에 눈에 거슬릴 정도로 드러나 있는 익살스런 유대성 풍자와 외설적 문구 등을 예로 들면서 혹평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랜빌 히스(Granville Hicks)는 이 소설을 “결작에 매우 근접한 소설(Hicks, pp. 38-39)”이라고 평했으며 라저스(Bernard F. Rodgers)는 대부분의 비평

가들이 이 소설을 10년 동안의 문화적 이정표를 이룬 작품으로 평가할 것(Rodgers, p. 80)이라고 극찬했다.

로스의 처녀작인 『굿바이, 콜럼부스』가 외형상으로는 미국사회 내에서 신분과 가정환경이 서로 상이한 젊은 유대인 남녀의 한 여름날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잣집 딸을 부인으로 삼아 신분 상승을 꾀하려는 남자 주인공인 닐 클루그만(Neil Klugman)의 왜곡된 아메리칸 드림의 추구 양태가 그의 인종적 정체성의 위기와 뒤엉켜있는데, 이렇게 유대적 정체성의 확립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의 회복이나 인간관계의 확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제는 『포트노이씨 병』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포트노이씨 병』의 주인공인 알렉산더 포트노이(Alexander Portnoy)는 로스의 소설 주인공들 중에 가장 희극적인 인물로 전형적인 슈러미일(schlemiel) 타입에 속하는 인물이다. 『굿바이, 콜럼부스』의 주인공 닐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포트노이는 유대성을 중요하고 미국사회에 동화하기를 갈망하는 인물로 이교도 여인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아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인물이다. 그의 불평의 주요 원인은 보험회사 세일즈맨이면서 번비로 고생하는 소시민 아버지의 소심성과 간섭이 지나친 유대인 어머니와의 에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도 들 수 있겠지만, 미국인으로 동화되지도 못하고 전통적인 유대성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그의 정체성의 혼란에 있다. 자기 삶의 내면적 성찰이 없이 미국 사회에서 이교도 처녀와의 성관계를 통해 미국사회에 동화되려는 시도가 여의치 않자, 주인공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찾지만 이스라엘에서 그는 미국인으로만 여겨질 뿐 결국 유대인도 될 수 없고 미국인도 될 수 없는 ‘허공에 매달린 사나이’로 남게 되는 것이다.

2. 유대적 정체성의 위기와 극복의 가능성

이 소설은 서른세 살의 현직 변호사이자 뉴욕 시 인권옹호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포트노이가 정신과 의사인 스피보겔 박사(Dr. Spielvogel)에게 어린 시절부터 겪어 온 자신의 혼란된 정신상태를 고백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라저스는 포트노이의 혼란된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의사에게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는 정신분석학적 독백의 장점으로 포트노이의 심리상태에 현실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일반 문장에서 허용될 수 없는 언어와 이미지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성적인 기억들을 서술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Rodgers, p. 87). 작가는 이 소설의 개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설의 줄거리가 전개되기 앞서 사전식의 표제어로 ‘Portnoy’s Complaint’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Portnoy's Complaint (pɔrt'-noiz kəm-plānt') *n.* [after Alexander Portnoy (1933-)] A disorder in which strongly-felt ethical and altruistic impulses are perpetually warring with extreme sexual longings, often of a perverse nature. Spielvogel says: 'Acts of exhibitionism, voyeurism, fetishism, auto-eroticism and oral coitus are plentiful; as a consequence of the patient's "morality," however, neither fantasy nor act issues in genuine sexual gratification, but rather in overriding feelings of shame and the dread of retribution, particularly in the form of castration.' (Spielvogel, O. "The Puzzled Penis," *Internationale Zeitschrift für Psychoanalyse*, Vol. XXIV p. 909.) It is believed by Spielvogel that many of the symptoms can be traced to the bonds obtaining i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포트노이씨 병이란 강한 윤리적 이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태적일 때가 많은 극단적인 성욕 때문에 부단히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으로 고민하는 병이라는 로스의 사전적 정의에 나타나 있듯이 주인공은 성적 욕망과 도덕적 의무감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주인공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그의 불안정한 성 정체성(gender identity)과 민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과 관련이 있다(Baumgarten & Gottfried, p. 84). 성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은 출생으로 확립되기보다는 사회적인 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여건 중에서도 특히 주인공의 가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트노이의 가정은 미국에 뿌리내리고 살면서 미국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유대성을 고수하려는 유대인 이민 2세대 가정이다. 포트노이의 어머니는 『굿바이, 콜럼부스』의 주인공인 닐 크루그만(Neil Klugman)의 숙모 그래디스(Gladys)처럼 유대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자식에 대해 지나치게 강압적인 전통적인 유대인 어머니 상에 걸 맞는 인물이다. 어린 시절 포트노이에게 있어서 보형 외 환원인 아버지 제이크(Jake)는 먹은 것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변비로 고생하면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로 비취진 반면에, 어머니는 전지전능한 신비로운 존재다. 이 소설은 포트노이가 유년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상반된 회고로 시작된다.

She was so deeply imbedded in my consciousness that for the first year of school I seem to have believed that each of my teachers was my mother in disguise... Her ubiquity and his constipation, my mother flying in through the bedroom window, my father reading the evening paper with a suppository up his ass... these, Doctor, are the earliest impressions I have of my parents of their attributes and secrets. (pp. 1-3)

소년기의 포트노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유대인 음식 규율(kosher)에 어긋나는 햄버거나 프렌치 포테이토를 먹는 등 반항적으로 변해가자, 자식을 소유물이나 작은 연인쯤으로 여겼던 어머니는 점차로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인다. 급기야 포트노이가 식사 때 고분고분하게 음식 먹는 것을 꺼려하면 문 밖으로 내쫓거나 빵 칼로 위협하며 강제로 음식을 먹이기까지 한다. 포트노이는 어린 시절의 가슴 아픈 회상을 하면서 어머니의 지나친 행동에 분개하며 어떻게 어린 자식의 목에 칼을 들이 댈 수 있느냐고 스피보겔 박사에게 한탄한다.

Doctor, *why*; why oh why oh why oh why does a mother pull a knife on her own son? I am six, seven years old, how do I know she really wouldn't use it? - I probably don't even weigh sixty pounds yet! Someone waves a knife in my direction, I believe there is an intention lurking somewhere to draw my blood! (pp. 16-17)

이러한 토로는 다른 정신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포트노이가 주치의에게 자신의 현실관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의사와 독자를 유대인 특유의 익살스런 상황으로 끌어들이면서 자신이 혼란된 정신 상태를 갖게 된 연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Baumgarten and Gottfried). 포트노이가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맺지 못하여 죄의식에 사로잡혀 혼란된 정신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어쩌면 미국에 살고 있는 정상적인 유대인들의 드러나지 않은 내면세계를 극적으로 표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포트노이의 토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겪는 애환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다.

Doctor Spielvogel, this is my only life, and I'm living it in the middle of a Jewish joke! I am the son in the Jewish joke — *only it ain't no joke!* Please, who crippled us like this? Who made us so morbid and hysterical and weak?... Is this the Jewish suffering I used to hear so much about? Is this what has come down to me from the pogroms and the persecution? from the mockery and abuse bestowed by the *goyim* over these two thousand lovely years? Oh my secrets, my shame, my palpitations, my flushes, my sweat! (pp. 39-40)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소피(Sophie)의 지나친 애정과 통제로 인하여 포트노이는 어머니에 대한 애증병존 감정을 공유한 채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했으므로 사춘기가 되어도 자신의 남성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성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 포트노이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이교도 소녀와의 교제를 통해 이를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자신의 유대인 특유의 외모와 이름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 탓에 감히 데이

트 신청도 해보지 못한다. 결국 그는 이교도 소녀를 내심으로 더 열망하면 할수록 대리 만족을 위해 화장실에서 자위행위에 탐닉하게 된다. 비평가 라저스는 포트노이가 사춘기 시절에 지나친 자위행위에 탐닉한 것 외에도 성년기에 이르러 이교도 소녀를 정복함으로써 자아를 확립해 보려는 외설적 성향을 보이는 것을 성적인 탐닉을 통해 자유를 찾으려는 그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Rodgers, pp. 93-94). 포트노이는 이교도 소녀를 정복해보려는 갈망과 부모에 대해 느끼는 모순된 감정들 사이에서 정신적인 혼란을 느끼고 이를 해소해보려고 자위행위에 탐닉하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나친 성적인 탐닉과 이를 제어 못하는 도덕성의 상충에서 빚어지는 죄의식은 포트노이의 고백(pp. 113-114)에 나타나있듯이 사춘기 이후에도 계속되어 주인공이 변호사가 되어 뉴욕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춘기 시절의 정신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주인공이 열다섯 소년의 정신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유대인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직 자신의 도덕적 성숙에 필요한 자기 성찰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미숙함은 혼란된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부모 탓으로 돌리고,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전통에 반하는 무절제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즐기려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Because to be *bad*, Mother, that is the real struggle: to be bad — and to enjoy it! That is what makes men of us boys, Mother. But what my conscience, so-called, has done to my sexuality, my spontaneity, my courage! (pp. 138-139)

작가는 포트노이가 성도덕을 어긴 후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에서 남성다움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Reading Myself and Others*, p. 19). 바움가튼과 고트프리트는 포트노이가 남성다움을 상실하는 것을 그가 유대성과 미국적 남성성이 요구하는 갈등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What unmans Portnoy is his inability to choose between the conflicting claims of Jewishness and a more mainstream American masculinity. (Baumgarten & Gottfried, p. 88)

주인공은 정신과 의사가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에게 용기 있고 강한 남성다움을 부여해 달라고 애원하지만 사실 성 정체성이든 민족 정체성이든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 남이 확립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교도 소녀를

정복하는 것이 미국에 동화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포트노이에게 아무런 갈등과 혼란을 느끼지 않는 안식처로 작용하는 곳은 터키탕과 야구장이다. 그에게 터키탕은 여자들, 특히 강압적인 어머니와 혼란을 야기 시키는 이방인 여자가 없는 곳이며(52), 야구장은 자기 확신과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79-80). 주인공이 이성관계에서나 이교도와와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터키탕에서 느끼는 남자들끼리의 편안함과 야구에서 느끼는 협동심과 유대감이 주인공의 이성관계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포트노이의 성적인 상대가 되는 여자는 네 명이다. 대학 시절 처음 사귀던 이교도 소녀 케이 캠벨(Kay Campbell)은 포트노이가 그녀를 유대교도로 개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하자 결별한다. 두 번째 사귀던 여자 친구인 몰스비(Sarah Abbott Maulsby)는 포트노이가 오랄 섹스를 강요하자 결별하고 만다. 포트노이는 순례자(Pilgrim)란 별명을 붙여준 몰스비와 헤어진 후, 미국의 각 주에서 이교도 여인을 유혹함으로써 미국을 정복해 보겠다는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Conquer America — maybe that's more like it. Columbus, Captain Smith, Governor Winthrop, General Washington — now Portnoy. As though my manifest destiny is to seduce a girl from each of the forty-eight states. (p. 256)

포트노이의 왜곡된 성적인 모험심은 불안정한 성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세 번째로 만난 포트노이의 여인은 성희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단순하고 무식한 이혼녀인 리드(Mary Jane Reed)이다. 포트노이는 육체적인 향락에만 몰두하는 몽키(Monkey)라는 별명을 붙여준 리드를 경멸하면서도 그녀와의 성희를 즐긴다. 몽키는 무식하지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영리한 포트노이보다 진솔하다. 포트노이의 성적 방종은 몽키와 한달 정도 유럽여행을 할 때 매춘부를 고용해 삼각 섹스파티를 갖는데서 최고조에 달한다.

로스의 소설들은 포트노이의 성적인 모험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상당한 부분이 외설에 가까운 정도로 노골적으로 기술되어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외설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위선을 가리고 있는 제재와 규율과 옛 질서를 깨뜨리고 창의적인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디오니소스적인 본성이 주인공의 의식 속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인공이 전통적인 유대음식 규율(kosher)에 위배되는 바다가제를 먹는다든지(pp. 87-89), 이교도 여자와 사귀는 일도 어느 정도 디오니소스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트노이가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몽키를 내버려둔 채로 혼란된 정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바로 유대인의 땅인 이스라엘이다. 포트노이가 조

국의 땅을 찾아간 것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고자하는 자신의 내적인 욕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려서부터 <올 에이>인 학생이었고 서른 세 살인 이제는 뉴욕의 사회적인 명사인 포트노이가 유대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진정한 미국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탓에 유대인들의 본향인 이스라엘에서 민족 정체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런지도 모른다. 로마의 호텔에 내버려두고 온 몽키에 대한 죄의식과 그녀의 자살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자신의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폭로 가능성 등으로 괴로워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심성이 아직 고루(固陋)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포트노이는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자신이 유대인의 역사에 동화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유대 민족성의 회복이라는 자신의 꿈이 실현되리라는 느낌을 갖는다.

And everything I saw, I found I could assimilate and understand. It was history, it was nature. It was art... My dream begins as soon as I disembark(285).

헤일리오(Halio)는 포트노이가 느끼는 이런 감정을 민족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징후로 보고 있다(Halio, p. 76). 그러나 이것은 포트노이가 혼자서 느끼는 감정일 뿐 이스라엘에서 그는 미국인으로 여겨질 뿐 유대인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These are... the natives. Returned! This is where it all began! Just been away on a long vacation, that's all! Hey, here we're the WASPs! (p. 286).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포트노이는 미국에서 이방인 여인을 정복함으로써 성 정체성을 회복하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여자와의 성 관계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회복해 보려고 한다. 포트노이는 그의 네 번째 여인이 되는 나오미(Naomi)라는 이스라엘 군대의 중위 아가씨를 유혹하기에 이르지만 자신이 성 불능 상태가 되어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포트노이는 나오미를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 줄 구원자로 인식하고 그녀와 결혼하여 이스라엘에 정착하려고 청혼하지만 거절당하고 만다. 포트노이가 성불능이 된 원인 중에는 몽키에 대한 죄의식과 나오미에게서 자신의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고 무기력해진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나오미가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다 얼굴을 묻고 조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함께 살자고 애원하는 포트노이를 견어차고 떠나가고 포트노이가 실패한 자신의 처지를 자학하면서 우는 것으로 줄거리가 마무리된다.

Where other Jews find refuge, sanctuary and peace, Portnoy now perishes! Where other Jews flourish, I now expire! And all I wanted was to give a little pleasure — and make a little for myself. Why, why can I not have some pleasure without the retribution following behind like a caboose! Pig? Who, *me?* And all at once it

happens again, I am impaled again upon the long ago, what was, what will never be! The door slams, she is gone — my salvation! my kin! — and I am whimpering on the floor with MY MEMORIES! My endless childhood! (p. 306)

주인공은 조국인 이스라엘 땅에서마저 이교도 여인이 아닌 나오미를 통해 민족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회복해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라저스는 포트노이를 쿠퍼(Cooper)의 『모히칸족의 최후』(*The Last of the Mohicans*, 1826)의 호크아이(Hawkeye)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1884)의 헉(Huck), 그리고 어빙(Irving)의 립(Rip)과 비교하면서 과거의 주인공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광대한 대자연이 미개척지로 남아있어서 이들 주인공들이 미개척지의 탐험과 개척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불만스러운 문명의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포트노이와 같은 현대의 주인공에게는 더 이상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미개척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탈출구를 외설과 정신분석학적인 고백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Rodgers, p. 91).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트노이는 도피할 곳을 허용치 않는 현대 문명의 희생자인 것이다.

『굿바이, 콜럼버스』가 주인공의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반하여, 『포트노이씨 병』은 주인공이 사춘기 때의 미몽의 상태에서 완전히 헤어날 수 없는 채로 판사 앞에서 그 동안의 방종했던 자신의 행실에 대해 재판을 받는 상상으로 끝이 난다. 결국 포트노이는 유대적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사회에 동화하지 못한 채로 정신적인 혼란만 가중시킴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인물로 회화되어 있다.

III. 결론

유대주의에는 생명, 사랑, 정의, 자유, 진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가치들이 수없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긍정적 가치들은 서로 독립되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라는 하나의 유대적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삶은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대적 규범이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므로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살아서 행동해야한다는 뜻이 유대적 규범에는 내포되어 있다. 살아서 행동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도덕적으로 성숙하다는 뜻이요, 죽는다는 것은 인간답지 못하여 가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삶을 선택해야함은 사랑과 자유와 진리를 향한 필연적인 조건이며, 하느님

을 사랑하는 조건도 된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삶의 선택은 생명의 은혜를 스스로 누릴 뿐만이 아니라, 타인과 공유하라는 야훼 하느님의 명령이기도하다. 유대 성인 힐렐(Hillel)은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하지 말라고 가르친다(Bokster, p. 100). 유대인에게 있어서 고립과 소외는 저주나 다름없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서만이 삶에 내재하는 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긍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벨로우나 뮐러무드의 주인공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기한 유대적 가치를 구현하는 인물들인데 반하여, 로스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는 인물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로스의 주인공이 벨로우나 뮐러무드의 주인공에 비하여 유대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하하는 듯이 보이지만, 작가가 지향하는 목표는 두 유대인 선배 작가와 표현 양태만 달리할 뿐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포트노이씨 병』은 『굿바이, 콜럼부스』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유대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여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이 겪게 되는 정체성 위기의 문제는 『욕망의 교수』(*The Professor of Desire*, 1977)에서 학자인 유대인 주인공 데이빗 케피쉬(David Kepesh)가 겪는 탕아적 본성과 학자적 본성의 갈등을 통해 심화되어있다. 『포트노이씨 병』의 주인공 포트노이는 유대성과 미국 동화라는 문제로 시종일관 고민 한다는 점에서 로스의 주인공들 중에서 가장 유대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포트노이가 추구한 것은 미국의 이교도 여인들을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고 진정한 미국인으로 동화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성 정체성이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채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상대방, 특히 이성을 존중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미국 사회에 동화하려는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의 자기중심적인 소아적 인생관을 반영해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주인공의 분열된 자아의 양태를 통해 진정한 정체성의 확립이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식, 나아가 자신의 내면적 성찰과 올바른 현실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Fromm, E. (1983). 『유대인의 인간관』. (김남석 번역). 서울: 서음출판사.
 Baeck, L. (1948). *The essence of Judaism*. New York: Schocken Books.
 Baumgarten, M., & Gottfried, B. (1991). *Understanding Philip Roth*.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ress.

- Belkin, S. (1958). *Studies in Torah Judaism: The philosophy of purpose*. New York: Yeshiva Univ. Press.
- Bokster, B. Z. (1951). *The wisdom of the Talmud: A thousand years of Jewish thought*.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 Cooper, A. (1996). *Philip Roth and the Jew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uttmann, A. (1971). *The Jewish writer in America: Assimilation and the crisis of ident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lio, J. L. (1992). *Philip Roth revisited*. New York: Twayne Publishers.
- Hartman, D. (1978). *Joy and Responsibility: Israel, modernity, and the renewal of Judaism*. Jerusalem: Benzvi Ponsstner.
- Hicks, G. (1969). Literary horizons, *Saturday Review*, February 22.
- Horton & Edwards. (1974). *Backgrounds of American literary thought*, New Jersey: Prentice Hall.
- Howe, I. (1959). A review of *Goodbye, Columbus*. *New Republic*, 140(15 June).
- Lange, N. D. (1986). *Judaism*. Oxford. New York: Oxford Uni. Press.
- Larner, Jeremy. (1970). The conversation of the Jews. *Partisan Review*, 27, 758-775.
- Mannes, M. (1969). A Dissent from Marya Mannes, *Saturday Review*, February 22.
- McDaniel, J. N. (1974). *The fiction of Philip Roth*. Haddonfield, N.J.: Haddonfield House.
- Meeter, G. (1968). *Bernard Malamud and Philip Rot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 Ozick, C. (1983). *Art and ardor*. NY: Knopf.
- Palumbo-Liu, D. (1995). Universality and minority culture. *Differences*, 7(1), 188-208.
- Pinsker, S. (1982). *Critical Essays on Philip Roth*. Boston: G. K. Hall & Co.
- Ribalow, H. (1960). Goodbye, Columbus, *Chicago Jewish Forum*, 18, 360-372.
- Rodgers, B. F. Jr. (1978). *Philip Roth*. Boston: Twayne Publishers.
- Royal, D. P. (2005). *Philip Roth*. Praeger Publishers.
- Roth, P. (1959). *Goodbye, Columbus*. New York: Bantam Books.
- Roth, P. (1969). *Portnoy's Complaint*. New York: Bantam Books.
- Roth, P. (1997). *The Professor of Desire*. New York: Farrar, Straus.

Roth, P. (1975). *Reading Myself and Others*. New York: Farrar, Straus.
Shechner, Mark. (1974). Philip Roth. *Partisan Review*, 41, 335-348.

예시 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백낙승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033) 250-8152
E-mail: nsbaek@kangwon.ac.kr

Received in July. 2006
Reviewed by Aug. 2006
Revised version received in Sept. 2006